

10월, 다가가기

캄보디아 나..너..좋아해♡



캠팀의 일주일 스케줄! 아~!신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9시	리코더(정연) 멜로디언 (재학)	밥퍼	프놈끼라운 유치원	리코더(정연) 멜로디언 (재학)	퐁크니어 유치원	한글학교
10시	밥퍼		프놈끼라운 중학교	밥퍼	프놈끼라운 중학교	
11시	멜로디언 (재학) 미술(원영) 한글중급 (성래)		밥퍼 멜로디언 (재학)	미술(원영)	한글중급 (성래)	
12시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시	크메르어 수업 리코더(정연)	크메르어 수업 한글초급 (주민)	프놈끼라운 유치원	크메르어 수업 한글초급 (주민) 리코더(정연)	크메르어 수업	
2시	퇴근	한글초급 (주민)	도서관 프로그램	한글초급 (주민)	퇴근	
3시		스텝한글교육		스텝한글교육		
4시		퇴근	퇴근	퇴근		
10시	팀 회의		7시: 원장님과 회의		팀 회의	

+ 15~16 빈곤퇴치 캠페인 + 14일, 21일 무빙스쿨 in 캄보디아 + 31일 숙소 이사
수월 틈이 없었던 10월~! 신난다~!

1. 프놈크라운 중학교, 유치원, 쟁크니어 유치원

1. 프놈크라운 중학교



우리 캄보디아 팀은 일주일에 두 번 이곳에서 한글수업을 하고 있다. 한글과목이 정규수업인 프놈크라운 중학교에서의 수업은 우리 아띠들이 어느 활동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활동이다. 또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감도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중학교 7학년(재학, 주민), 8학년(성래, 정연)에 아띠 선생님들 두 명씩, 2년 동안 한글을 배운바 있는 9학년(원영)은 한명의 아띠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한글을 배우는 7학년은 기초학습과 흥미를 끌기 위한 여러 놀이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이다. 또 1년간 한글을 접한 바 있는 8학년은 간단한 인사말, 자기소개가 가능한 수준이며 기본 회화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고참반 9학년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줄 알고 떠들떠들하게라도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9학년은 선정된 교재를 바탕으로 한 프린트물로 기본 생활어에 서부터 기초 문법까지 심화된 학습을 하고 있다.

한국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이 곳 아이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은 불어오는 한류열풍과 함께 날로 높아지고 있다. 물론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글과목이 정규수업이다 보니 한글에 관심 없는 아이들도 의무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친구들이 수업에 비협조적이진 않을까?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 분위기가 '같이 하자' 라는 분위기여서 비교적 수월하고 즐겁게 수업하고 있다. 이 친구들과 재미있게 한글수업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또 중학교 수업을 하면서 이 나라의 10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두루두루 검사검사 서로 알아가는 재미를 붙여 나가야겠다.ㅋㅋㅋ



2. 유치원



유치원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많아 오전반 오후반이 나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은 샘물다일유치원 오전/오후반을 한 시간씩 모두 맡아 하고 있고 금요일은 수상다일유치원 오전 반 두 반을 맡아서 하고 있다.

지독한 물난리로 출근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유치원 오전 수업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아직 오전 반 아이들의 얼굴을 다 익히진 못해 아쉽다. 흑흑 -- 첫 날은 아이들의 출석부에 들어갈 사진을 하나하나 찍으며, 이름을 물어보며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비곤퇴치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린아이들은 역시 같이 놀아주는 것이 최고인 것 같다^^하하하 두 번째 시간에는 동요(머리, 어깨, 무릎, 발)에 맞춘 율동과 신체이름 알아보기? 활동을 하였다. 꿈틀꿈틀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까>< 세 번째 시간에는 점선에 맞춰 그림을 따라 그리는 활동을 했다. 색색의 크레파스로 그려낸 도형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너도 나도 자랑하는 모습 또 한 너무 귀여웠다. 절로 입가에 미소가.. 흐흐흐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결국 해 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또 한번 미소 짓게 되었다:) 다음 시간에는 신체검사를 한다~! 얼마나 아이들이 자랐을지 기대가된다. (전 학기 데이터가 남아있어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자라는 이곳에서 우리 모두 전 보다 한 뼘씩 더 자라나길 기대해본다^^



♫.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 수업까지 하면서 우리 팀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다. 센터 주변의 완전 간난 아기부터 센터에 밥 먹으로 오는 어린이들, 또 중학생, 센터의 또래 스레들까지 아이들에게 더 다가가고 그들을 더 이해 할 수 있는 매개체(중학교, 유치원 등등) 또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 왜 인지는 모르지만 든든하다. 그 속에서 더욱 더 돈독해지고 서로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 도서관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곳은??! 바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밥퍼 센터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KB국민은행-다일도서관이다. 2010년 5월 20일 첫 발을 내딛은 KB국민은행-다일도서관은 5개월가량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되었으며 현지 도서 3000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현지 도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동화책을 소장하고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 앞 늪틈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도서관은 아이들이 1,2층을 오가며 저마다의 꿈을 꾸고, 키울 수 있게 돕는 꿈의 터전인 것이다. (도서관 2층은 쌀라아띠, 영어 공부 등 방과 후 학교의 교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판업이 빈약한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책을 접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아이들 동화책의 경우에도 귀신, 도깨비, 미신 등 아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소재를 다룬 것들이 많다고 한다. 문맹률 또한 높아 캄보디아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기에 힘든 환경 속에 자라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도서관이 생기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발걸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지속적인 이벤트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도서관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국내 훈련 때

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또 수원에서 여러 가지 도서관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보고 배워왔지만 직접 도서관과 그리고 아이들과 마주하니 처음에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쉽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다.
 π π

하지만 우리의 목표~!! 애들아 도서관에서 놀자^^*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내의 도서관 프로그램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진 않지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도서관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으샤으샤 힘을 내어 첫 번째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도서관 앞, 유치원, 중학교 앞에 매주 수요일 pm2:30분에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심장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ㅋㅋ 포스터를 붙이고 센터 주변 아이들에게 일일이 홍보를 하면서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와 줄까?'라고 마음 졸이며 돌아올 수요일을 기다렸다.



♪.

드디어 대망의 첫 도서관프로그램 하는 날~!!
 홍보가 덜 된 터라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임기응변으로 센터 주변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죄다 끌어 모아 도서관에 앉히기 성공했다. 아이들의 어리둥절해 하는 표정과 궁금함이 서려있는 표정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였다.^^ 첫 시간은 국내 훈련 중 캄보디아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번역을 부탁드리 '나무가 없으면'이라는 동화를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였다. 먼저 현지 스텝의 도움을 받아 번역해온 동화책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 우리의 도서관프로그램은 현지 스텝과 함께한다. 현지 스텝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언어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공백기, 더 나아가 아파들이 없을 때 현지 스텝들이 스스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끄려나갔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 때문이다. 또 어쩌면 우리보다 자신의 나라 정서에 맞는, 그리고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튼~! 우리의 첫 도서관프로그램은 동화를 읽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듣는 아이들을 보며 내심 뿌듯함을 느껴보려고...한 찰라 책을 읽어 주는 분위기에 익숙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금세 집중을 잃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동화를 다 읽어주고 책의 내용과 나무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하는 몇몇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과 벅참?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동화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이들이 전달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컸기 때문이다. 큰 수확이다^^

또 이 날은 출석부를 만들었다. '나무가 없으면'이라는 동화와 연관 지어 도서관 한 쪽 벽을 할애하여 출석나무를 만들었다. 큰 나무기둥에 첫 날 온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사진이 있는 나뭇잎을 만들어주니 아이들이 무척이나 신나했다. 자신의 형제들을 다 불러오는 아이들도 있었다:)ㅋㅋㅋ 예상보다 좋은 반응에 우리도 덩달아 어

개가 으쓱으쓱했다. 직접 아이들이 나무를 만들어보는 활동이라 작은 아이들을 매번 들어 올려야 했던 오빠들은 꽤나 운동을 했겠지만 말이다. 푸하하^^ 거짓말처럼 점점 나무의 모양을 갖춰가는 것을 보며 신기해 마지않았고 또 다음시간 아이들의 나뭇잎으로 더 풍성해질 나무를 기대하며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우리의 역사적인? 첫 번째 도서관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었다.



출석나무의 효과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입소문이 퍼졌는지 두 번째 도서관프로그램은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 주었다. 아직은 아이들의 흥미와 집중을 끌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기로 하였다. 도서관이 간이 영화관으로 탈바꿈

하는 순간이었다.)영화관 못지않은 시설이라며 자화자찬하며 아이들과 애니메이션을 감상하였다. 같이 누워서 보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놀랄 만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두 번째부터 조짐이 있긴 했지만^^ 도서관에 언제 가냐고, 언제 재미있는 것 하나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생겼다. 한번 물어보고 재차 물어보는 아이들도 생기게 되었다. 무려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도서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신기하고 신났다! 즐거웠다! 기뻐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이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해 줘야 할 텐데...라는 책임감이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진 것이다.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아자아자~

근래에 했던 네 번째 시간에는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수건들리기 놀이, 모이기 놀이를 했다. 간단한 놀이라서 아이들과 쉽게 할 수 있었다. 도서관프로그램이 무엇을 가르쳐서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하고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같이 놀아본 결과~ 역시 아이들과 살 부딪혀가며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면서 서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는 인사를 건네도 뚱한 표정으로 일관했던 아이도 함께 도서관활동? 혹은 놀고? 나서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웃으며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생활 속 작은 변화지만 나에게는 어떤 변화보다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

우리의 목표와 바람은 간단하다.
 애들아~도서관에서 놀자~~!!
 아이들이 익숙하게 도서관에 드나들도록
 우리와 함께 그 곳에서 놀 수 있도록

그 곳에 가면 서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은 우리가 이 곳 아이들에게 혹은 이 곳 아이들이 우리에게 서로 다가감에 있어 소중한 장소이고 그런 소중한 추억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다. 다음 주 수요일 또 어떤 재미난 일들과 추억들이 쌓이게 될까 기대 된다.^.*

♪. 쌀라아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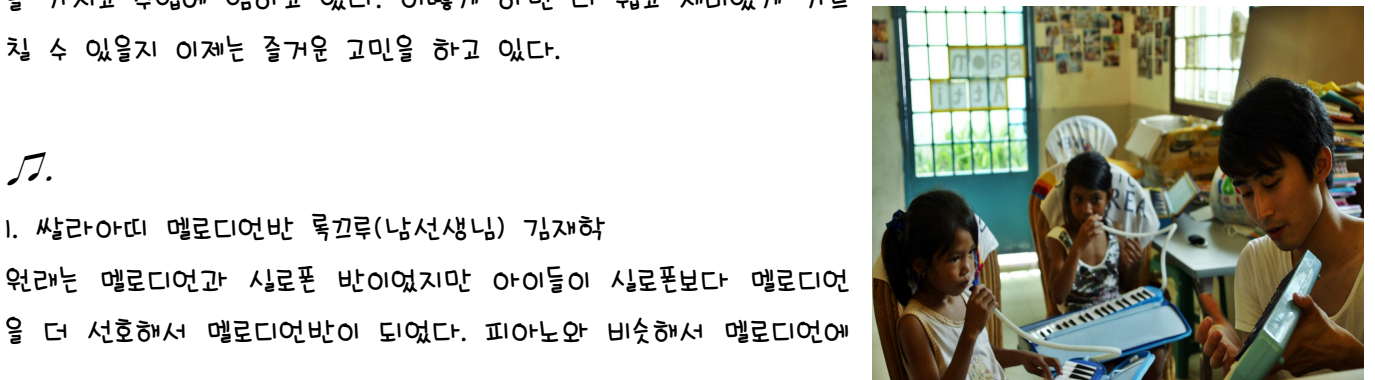
캄보디아에 오기 전부터 쌀라아띠 과목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정규수업에 도움이 되는 영어, 수학을 해야 할지, 정규수업이 없는 예체능을 해야 할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뒤 학교현장과 아이들을 보니 기회가 없어서 접하지 못하는 예체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멜로디언, 리코더, 미술, 한글반(초급, 중급)이 개설되었다.



그런데 모집시작 시기가 하필이면 캄보디아 추석인 푸춘번 기간이었다. 센터와 도서관 주변에 모집 포스터를 붙였지만 푸춘번이 끝나고 센터에 가보니 비에 젖어 엉망이 된 포스터와 소수의 신청자뿐이었다. 할 수 없이 모집기간을 일주일 더 늘리고 아이들이 많은 포퓰러한 학교에 모집공고를 냈다. 교장선생님께 포스터를 부탁드리고 일주일 뒤 학교를 다시 방문했을 때 붙여 있어야 할 포스터는 보이지 않았다.. 계속되는 물난리로 아이들은 물론 교장선생님도 학교에 오시지 않았고 굳게 잠긴 교무실 안에는 포스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붙여지지 않은 포스터를 보고 다들 허탈한 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다. 쌀라아띠는 개인별 수업이지만 12월 크리스마스 전체공연이라는 목표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멜로디언과 실로폰, 리코더 합주와 아띠들의 핸드벨, 한글반의 노래, 미술반의 무대디자인.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띠들의 걱정은 점점 커질 수밖에..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먼저 신청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때부터 아이들의 입소문으로 하나둘씩 신청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멀리서 달려오며 오늘 수업이 있냐고 물어보는 아이들과, 일찍 와서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 수업시간만큼은 집안일을 뒤로하고 오는 아이들의 뜨거운 열정에, 아띠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지 이제는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



♪.

1. 쌀라아띠 멜로디언반 록끼루(남선생님) 김재하

원래는 멜로디언과 실로폰 반이었지만 아이들이 실로폰보다 멜로디언을 더 선호해서 멜로디언반이 되었다. 피아노와 비슷해서 멜로디언에



흥미를 갖는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로 멜로디언이 부족해서 주 4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쌀라아띠 리코더반 넉끼루(여선생님) 이정연

아름다운 리코더 소리가 센터를 울리면 수업들 듣지 않는 아이들까지 몰려와 창밖에서 구경을 한다. 5기에 이은 지속적인 수업이라 그런지 계속해서 배우는 아이들이 있다. 1대과외 뺀치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 실력은 점점 수준급이 되어가고 있다.

3. 쌀라아띠 미술반 넉끼루 김원영

미술반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손에는 오늘 수업한 만들기 작품이 들려 있고 교실 벽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로 하나둘씩 메워진다. 벽이 아이들의 작품으로 가득 메워지는 그날을 기대한다.



4. 쌀라아띠 한글 초급반 넉끼루 한주민

모집인원이 이미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크눔 쩡 리운 피어사 꺀레(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두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한자 한자 글씨를 쓰고 읽는 모습과, 수업시간 외에도 와서 질문하는 아이들을 보면 더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주어야 겠다는 책임감이 막중해진다.



5. 쌀라아띠 한글 중급반 록끼루 조성래

수업시간에는 청일점이 된 선생님과 예쁜 여자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다. 친구들끼리 한국어말로 대화하고 싶고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국말을 배우다는 순수한 아이들, 머지않아 그 날이 오길 기대한다.

♪. 스텝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밥퍼를 이끌어가는 6명의 스텝을 소개하겠습니다!

mr.오은 - 다일의 맥가이버로 불리는 미스터 오은! 모든 기계와 장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슬레이밍과 함께 메인

요리를 책임지고 있다. 그의 훈훈한 미소와 부드러운 이미지는 캄보디아 미중년 1호! 오온의 부인은 바로바로~ 함께 메인요리를 하고 있는 슬레이멍이다. 엄마 아빠의 타고난 유전자 때문인지 아주 잘생긴 세 아들이 있다.



슬레이멍 - 밥퍼 주방장이 슬레이멍은 메인요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 많은 음식의 간을 순식간에 맞추고 같은 양을 배식하는 슬레이멍의 손짓을 볼 때 마다 신의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요리의 맛도 최고라서 아이들과 아띠들의 식판은 항상 깨끗하다.

른슬레이멍 - 밥퍼 제 2의 요리사이자 계란말이의 대모인 른슬레이멍! 따끈따끈한 계란말이를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글썽같이어서 아띠들들은 항상 찜을 인자를 수백 번씩 쓰고 있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파파야김치와 망고김치 역시 른슬레이멍의 손맛으로 만들어진다.

푸근한 인상으로 모두를 편안하게 해 주며 엄마를 꼭 닮은 다섯 딸의 어머니이다. 최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서 가르치는 주민이가 즐거워하고 있다.



노부야 - 노부야가 출동하지 않으면 밥퍼도 없다! 밥퍼 식재료와 물품을 담당하고 있는 노부야는 최근 물이 찾을 때에도 물길을 뚫고 식재료를 공수해 온 대단한 능력자다. 밥퍼 미녀인 사로앗을 사로잡아 부부를 꼭 닮은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일할 때 뽐어져 나오는 노부야의 카리스마는 엄청난 아우라를 뽐어낸다. 그 카리스마 바다에 정연이는 풍당 빠져버렸다. 아마 노부야의 그 카리스마가 사로앗을 사로잡은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을까? 밥퍼를 위해 새벽길을 뚫고 오늘도 노부야는 출동한다.

쏘튼 - 밥퍼의 밥과 물을 담당하고 있는 막내이자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장난끼 러기 쏘튼! 그의 장난에 캄짜캄짜 놀라기도 하지만 아띠의 장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ㅋㅋ 노래도 잘해서 스피커가 필요 없는 웅장한 목소리로 매일 모두의 귀를 즐겁게 해 주고 있다. 최근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뽀족뽀족한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생겼다.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더니 차분한 이미지로 변신! 그의 뽀족 머리 기술을 뽀오에게 전수한것 같다.





뽀오 - 뽀오는 센터의 차를 담당하고 있다. 아무리 고쳐봐도 안되던 튠드라를 다음날 고쳐온 대단한 능력자이다. 표현을 크게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장난을 잘 치며, 가장 먼저 아띠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외었다. 숨겨진 한국어 실력으로 레벨테스트 하던 아띠들을 놀래키기도 하였다. 쏘튼의 기술을 전수받아 머리가 점점 뽀족해지고 있다.

♪. 이런 저런 우리들의 이야기

♪. 캄보디아 먹거리

캄보디아 씨엠립 길거리에는 유난히 이동식 판매대에서 파는 먹거리들이 많이 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고소한 냄새에 항상 눈길이 멈추곤 하는데, 지금부터 몇 가지 먹거리들을 소개 해 볼까요?

1. 커피

센터 가까운 공터에는 아침부터 작은 장이 선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자주 들리는 가게가 바로 커피집. '쏟 아오이 카페 딱따개 딱개~' 연유가 짜란짜란(많이많이) 들어간 달달한 아이스크피는 일과 후 피곤함을 달래주는데 최고! 우리는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에 함께 수다를 떨며 피로를 날려버린다. 어느새 주인 봉스라이와 눈인사도 여유롭게 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만 우리~ 열 번 오면 하나 공짜 도장이라도 찍어야 할 판!!!



2. 와플

커피와 찰떡궁합인 와플 아줌마가 바로 그 옆에서 따끈따끈하고 달콤한 와플을 찌어낸다. 와플 아줌마는 비교적 오후부터 장사를 늦게 시작하는데 그 맛에 중독된 우리는 기다려서라도 먹고 만다. 커피 한잔과 와플의 조합은 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3. 라면

가끔 밥을 먹고도 허기가 질 때 와플 아줌마 뒷집에 있는 라면집에 간다.(그러고 보니 한 시장 내에서 모든 음식이 해결된다^^) 캄보디아 라면을 데쳐서 라면 집 특제 육수를 부어서 나오는데 그 맛이 과히 일품이다. 얼큰한 국물을 시원하게 마시고나면 어느새 라면 한 그릇이 딱딱! 그리고는 한 그릇을 더시킨다...호호호.

ㄱ.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잠깐! 캄보디아 살이 연대의 미스터리. 매 기수 아띠들 마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데...
두둥! '남자 아띠들은 살이 빠지는데, 왜 여자 아띠들은 살이 찰까?'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는 서로서로 너무 궁금하다. 왜 남자는 살이 빠지는데 여자는 살이 찌는가? 정작 썰야 할 재학쁘로(26)는
일부러 많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계속 빠지고 있어 모두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추측1. 남자 아띠들은 망고생이 심하다.

원영스라이(25) : 남자 아띠들은 몸 고생도 몸 고생이지만, 망고생이 심한 가보다. 한국에 두고 온 어여쁜 썬싸
(애인) 때문일까?ㅋㅋㅋ.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가?

추측2. 여자 아띠들은 방에 몰래 음식을 숨겨두고 먹고 있을 것이다.

성래쁘로(25) : 여자 아띠들은 스트레스를 피개로 음식을 마구 흡입하고 있다. 이로보아 방에 쌓아놓고 안 보이는
곳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먹고 있음에 틀림없다.

추측3. 은근히 상황을 즐기고 있다.

정영스라이(21) : 남자 아띠들은 본인들이 살이 빠지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리고 그
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듯하다.

재학쁘로(26) :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매우 고통스럽다. 나도 살이 찌고 싶다고! 너희들 역시 그 상황을 즐기
며 먹고 있는 거임. 그냥 먹지를 마!

주민스라이(21) : 아니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떡해. 아 맛만 보려니 어느덧 한 개, 두 개... 왜 이렇게
캄보디아에는 맛있는 게 많은 거여~

ㄱ. 요즘 캄보디아는 뚝 짜란짜란(물이 너무 많아요..)



우기의 막바지에 들어선다는 10月.. 이곳 캄보디아는 12년 만에 너
무나도 많은 비와.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인 '툰네삽 호수'가 범람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많은 어려움
을 겪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5기가
머물던 건기 시즌에도 폭우가 내렸다는 글을 읽어보면서 지구의 기후
변화가 많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
다.

툰네삽 호수는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다일 센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에 호수의 범람은 우리에게 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센터로 이동하는 도로가 침수되어 평소보다 출근시간이 오래 걸렸고, 자동차인지 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3대의 차들이 모두 고장나 불편함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물이 불어나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지 못해 학교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센터에 밥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센터가 있는 프놈끄라운, 쯡크니어 마을에는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센터 임시대피소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고, 많은 집들이 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겨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띠들이 힘을 합쳐 모금활동을 하여 쌀과 물을 포장하여 수재민들에게 나눠주고 그 외에도 임시 거주처 등을 마련하여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작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 누구도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숙소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인 시엠립시도 수해를 피하지 못해 수 차례 강이 범람하여 앙코르와트에서는 관광객을 헬기로 구조하는 사건도 있었고, 도로가 유실되고, 생업 및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랐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띠들도 외출 한번 하고자 하면 정~말 큰 맘을 먹어야 했죠...

캄보디아 전체적인 피해규모도 약 250명의 사망자와 전체 인구의 10%의 수재민, 농경지의 약 12%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국가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이 피해를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11월을 기점으로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더 이상 물이 불어나진 않지만 그 많은 물은 우리가 한국에 갈 때가 되도 원래의 수위로 낮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과, 인류가 오랜 세월 괴롭혀 왔던 지구가 어찌하면 마지막 '경고', 또는 '몸부림'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 지 생각해 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캄보디아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이러한 수해가 일어났으면 모든 게 All stop 되어 난리 아닌 난리를 겪고, 온통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표정이 가득할 것인데 그에 반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난리에도 도로에서, 집 앞마당에서 낚시를 하고, 수영을 하고 이동하기 힘들자 배를 끌고 나와서 도로에서 타고 다니고,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다이빙을 하고, 튜브를 타고 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뿌리는 장난을 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법을 아는 사람들 같습니다.



또한 이웃이 수해를 입자 아무런 지 않게 자신의 집에 같이 살도록 배려해주고, 서로서로를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수해를 입은 사람들인지 헛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모두 해결되어 이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캄보디아 팀은 수해를 입은 캄보디아를 위해 모금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출국 전 한국에서 모금해온 것과 아미들이 정성을 다해 보탠 돈 1000불을 모금했고, 한국에서 귀국단원들이 힘써줘서 보내준 1차 모금 580불과 2차모금 400불, 빈곤퇴치 캠페인을 하면서 모은 195불, 총 2175불을 다이공동체에 수해복구에 써달라며 전달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쌀 1t과 물을 사서 수재민들을 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End Poverty Campaign in Cambodia

♩.

2011년 10월 17일 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여기 캄보디아 씨엠립에서도 'End Poverty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우리 캄팀은 머리를 맞대고 둘러앉았다. 그리고는 먼저 빈곤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 해 보기로 했다.

빈곤이란 무엇일까? 흔히 우리가 '빈곤'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만 생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곳 캄보디아도 세계 10대 빈민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처음 여기에 와서 느낀 감정 또한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즉 상대적 빈곤 역시 심각한 빈곤 문제 중 하나라는 사실이였다. 그리고 그 상대적 빈곤의 주체가 경제적 여유뿐만이 아니라 시간, 사람,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도 개인의 차이에 따라 빈곤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나누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MDGs를 알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MDGs란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인 약속.

주요 내용으로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의 건강개선,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

캄보디아 씨엠립은 관광도시로서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다.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MDGs 내용에 대한 유인물 배부와 길거리 홍보를 통한 간략한 설명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직접 스티커 판을 제작하여 MDGs의 주요 내용 중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머칠을 밤늦게까지 모여앉아 완성한 현수막, 포스터, 피켓 등 준비물을 들고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15일 End Poverty 캠페인 첫날, 우리가 처음 간 곳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한



앙코르와트 매표소 앞! 역시나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고 있었으나 이게 웬일. 사전 연락조치가 되지 않아 캠페인 활동을 제지 당하고 말았다. 처음 시작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힌 우리는 아쉽지만 예상했던 홍보 시간보다 일찍 활동을 철수하고 자리를 옮겼다. 그래서 다음

으로 찾은 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 풋사 자, 나이트 마켓!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난 날 내린 많은 비로 인해 도로에 물이 차 평소보다 관광객이 적었고 홍보활동을 하며 이동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 보다 유인물 배부를 거절 하거나 캠페인 활동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MDGs를 이미 알며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문구용품 등을 후원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몇몇 상점 직원들과 오토바이 이동차량 기사들은 MDGs 유인물을 가져가 직접 배부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16일 다음날, 우리는 아침 일찍 캠페인 활동 허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가장 큰 쇼핑몰 물로 향했다. 겨우겨우 프놈펜에 있는 오토와 긴 통화 끝에 활동 허가를 받아낸 우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두 시간 가량 어제와 같이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라 어제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접근이 조금 더 쉬웠고 한 곳에서 꾸준히 홍보해서인지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준 사람들과 MDGs 내용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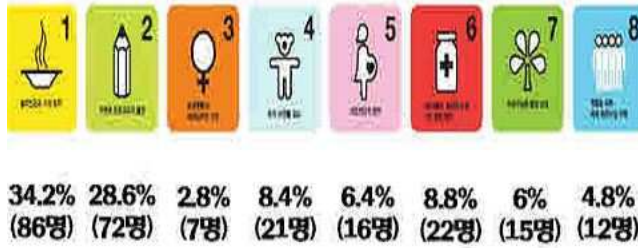


사실 더 놀라웠던 것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빈곤문제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젊은 청년들은 자국의 문제에 대한 깊은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어린 꼬마 아이들도 우리가 부족함 크메르어로 설명해주었더니 꽤나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스티커를 붙여주었다.



설문조사 결과 총 251명이 참여했고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34.2%), ②초등교육의 완전보급(28.6%), ③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2.8%), ④유아 사망률 감소(8.4%), ⑤임산부의 건강개선(6.4%),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8.8%), ⑦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6%), ⑧발전 을 위한 전 세계적 인 동반관계의 구축(4.8%)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참여인원 총 251명 중 가장 많은 86명의 사람이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겼고 다음으로 많은 72명이 '초등교육의 완전보급'을 꼽았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이 7명으로 가장 적었다.

길거리 설문조사 결과 (총 251명 참여)



그리고 이번 캠페인과 연계하여 톤레삽 수상마을 침수 피해 복구 모금활동도 함께 진행했는데 자국의 문제에 대해 선뜻 먼저 나서는 현지인들도 많았고 아이들은 꼬깃꼬깃 싸짓돈을 꺼내주기도 했다. 모금활동은 액수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고 15일 \$94.05, 16일 \$1이로 이틀간 총 \$195.05 가 모금되었다.

아직 MDGs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과 세계빈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캠페인 통해 그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작지만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긍정적인 반응들은 빈곤국가라는 자국의 문제를 알고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선진형 국가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 무빙스쿨 In Cambodia

♪.

우리 캠프는 이번 10월 캄보디아에 다가가는 한 가지 방법으로 무빙스쿨을 진행하였다. MDGs 캠페인에 대해 스케줄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약 500여 개의 NGO 단체들이 있기에 이 중 몇 군데를 방문해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우리팀은 '무빙스쿨 In Cambodia'라는 타이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원장님의 추천을 받아 '큰 빛 NGO', '로터스 월드(BWC)', '독도 홍보관'을 방문하기로 하고 미리 연락을 한 다음 먼저 빈곤퇴치 캠페인 기간인 10/14(금) '큰빛 NGO'를 방문하였다.

♪.

양코르 와트로 가는 길에 있는 큰빛 NGO는 3층 정도 되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갔기에 우리가 도착하자 석미자 선생님 및 공부하고 있는 현지인 학생들이 유창한 한국말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인터뷰에 앞서 이 기관에서 아디 2~4기가 한글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디와 같은 한국인 중, 장기 봉사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시기도 했다.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큰빛 NGO'에 대해 소개하면 한국NGO가 아닌 현지 로컬 NGO이다.(선생님 남편분이 대표. 캄보디아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활동은 교육 사업이다. 이 기관을 통해 교육받은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고 자립시키는 것이 단체의 목표이며 나아가 이들이 캄보디아를 개혁할 인재들로 성장하는 비전이 있다.

약 750명의 학생들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이러한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타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 고아 및 소년소녀가장을 우선으로 뽑는다.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12명인데 모두 현지인이고, 과거 석선생님이 양코르대학에 교수로 제직하시던 시절 선생님의 문하에 있던 학생들이다. 한국유학경험이 있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부심을 주기위해 대학교수와 비슷한 대우를 해준다고 한다.

씨엠립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상당하기에 시험 응시료가 없어 졸업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에 약 25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시험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가 양성되는 씨엠립 교육대학교와 MOU를 맺어 음악과 한국어 수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국내의 경인여대, 춘천교대와 씨엠립의 초등, 고등, 대학교와 연계하여 매년 정기적인 교육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왜 '교육'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킬링필드 사건을 비롯하여 교육 시스템이 취약한 캄보디아는 결국 교육이 아니면 자립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였고,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변화는 미시적인 것은 크지 않을지 몰라도 과거보다 정직해졌고, 밝아졌으며 무엇보다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다.

'유명해 지면 안 된다'라는 철학을 가진 대표님의 의견에 따라 각종 마스크의 관심을 피하며, 기업 및 개인의 큰 액수의 후원은 거절하시며, 추후 이 단체의 출신 학생들이 직접 이 단체를 이끌어나가고자 하는(자생) 운영철학도 말씀하셨다.



이 단체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단체의 이름과 같이 어두운 이곳 현실에 '큰 빛'을 비추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이 곳 출신의 학생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건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캄보디아는 ODA가 필요하지 않는, 오히려 다른 곳에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 보았다.

MDGs에 대한 설명과 중요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그 외의 것들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라는 선생님의 배움을 받으며 우리는 폭우가 내리는 거리를 뚫고 첫 번째 무빙스쿨을 마쳤다.

♪.

우리가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공항에서 조금 떨어진 '로터스 월드(BWC)'이다. 원래 이곳을 캠페인 기간인 17일 날 방문하고자 했으나 그날 엄청난 폭우로 인해 같은 주 금요일인 리일 방문하였다. 불교 조계종 산하 -실천승가회 스님들이 뜻을 모아 세운 이곳은 로터스 월드 해외 첫 번째 사업장으로 현재 미얀마에 두 번째 사업장이 건설 중에 있다고 하였다.

우리를 맞아주시신 신운섭 사무처장님의 안내로 우리는 이곳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터스 워드는 캄보디아의 '민족사관학교'와 같은 인상을 주는 교육시설이었다. 총 7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녀오면 방과 후 활동을 하고 마치 군대의 내무반과 같은(시설은 좋음)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다. 아이들은 공부할 의지가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으며 직원들이 학생이 살았던 지역에서 그 곳의 주위사람들에게 학생에 대한 인터뷰 후 내부회의를 통해 선발한다고 한다.

이곳의 소개를 받으면서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곳이면 으레 보수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깎아주며 학생들의 자유와 개방적인 생활을 허용한다고 했다. 그래서 간혹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면 아이들을 보고는 부유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로터스월드도 먼저 방문한 큰 빛 NGO와 비슷한 사업들을 하였다. 70명의 아이들의 교육사업과 지역 주민들 교육,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미용학원을 설립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터 외부의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기 위해 200명 정도를 장학금 및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며 철저한 후속 처리로 제대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초등학교의 교실 및 화장실, 도서관을 설립하는 사업과 위생교육과 과리오령을 교육한다.

교육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킬링필드' 사건으로 인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른의 부재와 그마저 있는 선생이 학생들을 금전 차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센터의 비전은 현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나가서 구걸을 하며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익숙해져 있기에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30년 안에 이 센터가 자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이 센터의 아이들이



원하면 대학교 해외 유학까지 보내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평소에는 특특이 기사, 마사지사 정도의 직업이 가장 수입이 좋다고 보고자란 아이들이 점차 꿈에 대한 시야가 넓어져 각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조계종 내에서도 우수시설로 인정받고, 자체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로터스 월드는 선진형 복지를 추구하고 그 복지의 끝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단체이다. 다일공동체와는 달리 인지도가 높은 단체는 아니라는 뜻 있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에 홍보에 힘쓰지 않고 있으며, 현지인 선생님 6명과 KOICA 단원 등 4명의 한국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MDGs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여쭙보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이란 것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시작 할 수 있기에 나머지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육 사업을 하는 로터스월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외의 것들을 하는 다른 단체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뷰가 마친 후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아이들이 지내는 기숙사, 수업을 받는 교실, 식당, 도서관, 법당 등을 둘러본 후 우리는 독도 홍보관을 가기위해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며 이곳의 방문을 마쳤다.

소수정예의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로터스월드의 교육 사업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깔끔하고 쾌적한 시설을 둘러보면서 누구든지 그 곳에 머물면 열심히 공부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안에서 선의의 경쟁이 생겨 학생들끼리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았고, 한국에서 세운 기관이지만 한국어를 의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도 들었다. 이곳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캄보디아가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독도 홍보관'이었다. 이날 아쉽게도 한국의 중남지사님이 이곳을 방문하여 관계자분들이 모두 자리에 없어 인터뷰는 하지 못해 홍보관을 한 번 둘러보는 것으로 대체했다.

독도홍보관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한 최초의 해외 홍보관으로 올해 2월 22일 일본 시네마현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맞서 교민 김정욱씨가 사재 1억 8천만원들 들여 건립하였다. 김정욱 관장님은 1991년부터 NGO 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로부터 최고훈장을 수여하기도 하신 분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연간 150만명)과 일본인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홍보관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홍보관을 둘러보면서 비록 크거나 세련되지 않지만 이 먼 캄보디아 땅에 독도를 알리는 홍보관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액자에 걸려있는 독도 관련 사진들과 독도 노래, 독도에 대한 정보 등을 보면서 미처 모르고 있던 내용들도 알 수 있었고, 일본이 독도가 자국의 소유라는 뉴스를 들으면 그저 화만 날 뿐, 나 또한 정확한 근거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빙스쿨을 하면서 모두 한국인들이 설립한 NGO단체(언어문제로 인해..)만 방문했다는 것과 교육기관 위주의 방문이어서 다른 분야의 단체에도 방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비록 공식적인 무빙스쿨은 여기서 끝났지만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더 많은 NGO 단체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 파타야 여행기

♪.

저희 캄팀은 캄보디아 추석 프롬벤을 맞이하여 9/26~29일 3박 4일동안 다일 원장님 가족과 함께 태국 파타야로 이룬 비자트립 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단원게시판에 따끈따끈한 저희의 여행기를 소개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데 캄보디아의 물난리와 태국의 상황 때문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올리지 못한 이야기보따리를 여기서 짧게? 또는 길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비자트립 여행지가 파타야로 정해지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파타야가 너무나 관광도시라는 점이 하나이고, 때 마침 태국 파타야 부근에 악어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악어라니.....악어 떼라니..... ㅜㅜ 하지만 '언제 한 번 파타야를 가보겠어?', '실마 악어가 바다까지 오겠어?'라는 강한 자기암시와 고민에 고민 끝에 저희는 아시아의 휴양지의 여왕~! 파타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

첫 날은 대부분의 시간을 파타야로 가는 미니버스 안에서 지내야했습니다. 12시간 만에 도착한 태국은 캄보디아와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휘황찬란한 네온싸인이 그러했고 뽕뽕 달리는 자동차들 또한 익숙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아마 더 그렇게 느꼈던 것은 파타야가 관광도시라 그런거겠죠?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특특이 기사님이 추천한 파타야의 유명 해산물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우리의 입과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등장한 황정음과 김용준....정말..정..말..에 뽕뽕이라구요 황정음...ㅋㅋㅋㅋㅋ여튼 여러 가지로 들뜬 마음을 달래며 우리는 내일의 파타야를 맛기 위해 일찍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둘째날, 본격적인 파타야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으로 떠나는 날 까지도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하긴 했지만 하늘은 언제나 우리의 편?ㅋㅋㅋㅋ 태국은 화창한 날씨로 우리를 맞이해주었습니다. 처음 들른 곳은 파타야의 거대한 열대정원 농녹 빌리지~! 농녹 할머니의 개인소유인 이 거대 정원은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열대



테마 파크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식물의 조화가 아름다운 약 200만평의 거대한 농장...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또 다양한 쇼들이 준비되어있어 눈과 귀가 즐거운 곳 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는 농녹빌리지 근처에 있는 황금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저 높은 산을 깎아 황금으로 이어 붙였는지.....정말 대단했습니다. 황금절벽 주위로 산책길도 좋아서 천천히 걸으며 담소를 나누기에도 좋은 장소였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파타야의 하이라이트~! 산호섬으로 고고고.^ 에메랄드빛으로 유명한 산호섬은 허니 문 여행지로도 유명하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투명한 바다색과 절로 걷고 싶게 만드는 해변가.....많은 외국인들과 따사로운 햇빛아래 찰랑거리는 파도..... 여자들의 로망 아니던가요.....파.타.야.산.호.섬♥

근데.....하필.....왜??..왜??...그날 녹조였을까요? ㅠ ㅠ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대신 옆을 파타야인데....다신 옆을 산호섬인데 ㅠ ㅠ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즐기러 왔으니 충분히 즐겨야 겠죠?ㅋㅋ 신나는 수상 레저와 물놀이~! 다들 수영을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진 우리는...아주 조심스럽게 소탕한 물놀이이지만 즐겁게 ㅋㅋㅋㅋ모두 파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아래 즐거운 한때였습니다.



즐거웠던 파타야의 여행은 우리모두의 활력소로 작용한 듯합니다. 좀 이른 여행이긴 했지만요...ㅎㅎ^^ 상쾌한 마음과 다시 돌아온 일상에

서 더욱 의욕이 넘치게 아티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다들 가깝든 멀든 여행은 다녀오셨나요? 분명 여행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분명 활력 소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멀리 떠나는 것도 좋고 가까운 곳도 좋고^^ 시간 날 때 어디로든 떠나보자구요~!

♪.번외 일기.

재학이의 일기- 2011년 10월 4일 9요일

캄보디아에 온지 한 달.

많은 것들을 나는 처음 겪으며 잘 적응하고 있고 예전보다 조금은 발전된 것 같기는 하다.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행복한 웃음을 볼 수 있었고.

한국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며 겪는 불편함도 느낄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현지어를 배웠으며...

확실히 발전하기는 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내가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다.

"세상은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 변화가 되라"

이곳을 변화시키고 도움이 되고자 이곳에 왔는데, 아직 나 스스로 변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지도 어렵게 느껴진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자.

인생의 가장 푸른 계절. 꽃을 피우고 가자!

정연이의 일기- 2011년 10월 28일 5요일

제목: 짝사랑 이제 끝?

두 달째 나는 짝 사랑을 하고 있다. 속으로 애달파하면서 말이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망울을 가진 그 아이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랑에 빠졌다.♥ 내 마음을 흘랑 다 빼앗아 가 버린 그.....

째.드라 이제 겨우 ()살먹은 예쁜 남자 아기이다. 처음에는 정말 속

앓이를 많이 했다.ㅋㅋㅋ인사를 해도 도도하게 모른 척 하기 일쑤이

고 다가가기라도 하면 쪼르르 엄마 뒤에 숨어 들어가 내 속을 애타

우곤 했다. 그의 매력은 바로 뒤통뒤통 뛰는 모습>(! 아직은 아기라

머리가 무거운지 뒤통뒤통 거리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입

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장담하건데 정말 누구든 그의 매력에 3초 내로 빠져들 것이다.하하하 뒤통거

리는 모습이 귀여워 그 아이 뒤를 쫓아가면 도망치기 바쁜.. 그런 비싼 아이이다. 그런데~!!그런데~!! 우리 재



재

뜨라가 달라졌어요♥ 드디어 두달 만에 나에게 '안녕'이라고 그것도 한국말로~!!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닌가!! 주위 사람들은 그게 웬말이지 어떻게 안녕이냐고 했지만 나에게 100%로 또박또박한 '안녕'이다. 하하하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사 뿐 아니라 오늘은 무려 나에게 불에 뽀뽀도 해주었다... 이게 무슨 횡재?? 근데...더 감동인건...이건 정말 기록해야 마땅한 순간이다. "짜뜨라~마오!!"(짜뜨라~이리와!! 정도?ㅋㅋ)라고 하자 쫓로로 웃으며 달려와 나에게 안기는 것이 아닌가!!!!!!!!!!!!!!감동을 넘어서 감격의 순간이었다 정말. 그가 나에게로 다가왔다.ㅋㅋㅋ내 짝사랑의 끝이 보인다. 이번 기회에 꼭 짜뜨라를 사로잡고 말 것이다. 내일 또 짜뜨라를 본다~~!!신난다~

원영이의 일기- 2011년 10월 13일 목요일

쌀라아띠 수업을 시작했다. 내 담당은 미술반! 예체능 교육을 많이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다가기를 바라며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마음 먹었다. 아이들이 종이 한 장에 크레파스만 내 주어도 좋아하는데 오히려 내가 다 감사하다. 그리고 종이에 넥끼루 나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 그림을 선물해 주기도 한다. 가끔은 아이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의 고운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소통은 문제 없을 것이다. 애들아 앞으로 우리 재밌게 놀아보자~

주민이의 일기- 2011년 10월 25일 화요일

제목: 쫓! 안기다

처음 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유난히 귀여운 남자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까이만 가도 울먹이며 누나와 엄마 곁으로 가는게 아닌가? 매일매일 다가가 봐도 반응은 똑같았다. 자꾸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꼭 안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놀이터, 집 앞 등 어디서든지 보이기만 하면 다가갔다. 그러던 어느 날 사진기기를 들이대니 신기하게도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닌가? 사진을 몇 번 찍고 어느 정도 낯선이에 대한 반응이 풀렸다고 생각할 때쯤 사진기가 눈앞에서 사라지니 또 여전한 반응이었다..



ㅍ ㅍ
 그 뒤로 보이지 않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항상 쫓 근처를 어슬렁거리니 낯가림이 없는 쫓의 여자친구와, 엄마,누나,형과 친해지게 되었다. 자신의 주변사람과 친해진 모습을 보아서일까? 안녕하며 손을 흔들려주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탕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기는 힘들었다. 그러던 오늘!! 인사하며 다가가니 웃으면서 달려오는 게 아닌가??

이게 정말 같은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반응이었다. 드디어... 쫓을 안았다!! 정말 두 달만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는 날이었다. 그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성래의 일기-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오늘 처음으로 센터를 구경 온 관광객한테 "한국분 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뭐야 저 아줌마는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는 친절하 표정을 여지로 지으며

"아니요 캄보디아 사람이예요"라고 장난을 쳤다.

그리고는 배식이 시작되면서 바빠졌고, 이 일을 잊고 있다가 숙소로 돌아오면서.. 숙소의 화장실 거울을 보며 그때의 상황이 다시 생각났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이후로 오늘처럼 거울의 내 모습을 자세히 본 적도 없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얼굴이 검은 편인 나는 지금은 거의 캄보디아인 수준을 넘어 흑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긴.. 땀병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선크림은 아침에 한번 바르고는 끝(그마저도 나의 땀에 금세 지워질테니..), 센터 앞에서 공놀이, 딱딱이를 탈 때나 툰드라(트러)를 탈 때 직사광선이 오는 자리 등등 나는 마이클 잭슨이 아닌 이상 피부가 탈 수 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지난주부터 툰드라가 과로로 쓰러지는 바람에 센터까지 출퇴근을 자전거로 해결하면서 더욱 많이 탄 것 같다.

캄보디아에 오게 되면서 각오했던 한 가지가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였다. 사실 한국에 있다고 해도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바르는 나지만 여기에서는 남의 시선을 초탈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나를 캄보디아인으로 착각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마음이 먼 가 이상했다. 혼자 자전거를 타고 센터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드는 생각이 '까맣게 탄 것 외에는 내가 과연 현지인과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였다.

여전히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좋은 옷, 좋은 물건, 좋은 환경에 둘러싸인 나는 여전히 "꼬레 캄트봉"에서 온 한국인 이였다. 하긴 내가 입고 있던 옷가지들 보고 그 아줌마가 나를 '한국인'이라는 의심을 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 '현지인이 되어 살아라' 라는 것을 과연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이 나라의 문화 같은 것을 경험해 보기만 했지, 습관화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기껏해야 이제는 음식은 달고 짜야 맛있고, 비닐봉지에 넣어주는 사탕수수나 커피가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제 3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좀 더 많은 현지인들의 습관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와의 약속!: 현재 75kg, 여기에 와서 7~8kg이 빠졌다. 살이 빠지고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요즘들어 체력이 부쩍 약해진 것 같다. 조금 더 건강관리에 힘써야겠다!

번외2 오사토크

재학-덤년누구나 - 매일매일 항상 붙어 다니는 아이. 덤 년 누군데? 왜 이리 귀여워~!
 성래-덤벼라줄근 - 이번 달은 도로에 물도 많이 차고, 트럭도 고장이 나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주로 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2시간씩 자전거를 타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트럭보다 빨리
 센터에 도착할 때도 많다. 몸도 많이 건강해 진 것 같고^^
 원영-까꿍경동이들 - 10월 들어 아이들과 더 친해졌다. 이 귀염둥이들~!
 정연-윈드송아자 - 윈드송을 기타로 연습 중
 주민-기막힌시원 - 10월 달에 심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번외3 제2회 캄캄 공유회- '세 얼간이'를 보고!!



주민이 말한다

세 얼간이는 한국에서부터 많이 들던 영화 이름이다. 주위에서, 인터넷에서 워낙 말이 많던 영화라서 한번 봐야지.. 하면서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달 캄캄공유회 영화로 선정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세 얼간이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인도 코미디 영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화를 볼수록 그렇게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주입식 교육에 찌든 요즘 아이들, 대학만 바라보는 아이들, 지나친 경쟁사회의 폐해, 가볍게 시작한 마음은 점점 깊은 생각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높은 현실의 벽속에서 알리즈웰을 외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주인공들, 내 앞에 가로막힌 현실의 벽을 부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나도 알리즈웰을 외치며 현실의 벽을 하나씩 부숴나가야 겠다. 알리즈웰~

원영이 말한다

'알 이즈 웰'아직도 이 주문이 이따금씩 머리속을 맴돈다. 제목만 듣고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엉뚱하고 재밌는 인도영화라고 생각했었는데 보고나니 이 시대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고민하는 이야기였다.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나 역시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실! 글썽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시키는 일을 따라가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부러워졌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늘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없도록 살고 싶다는 나의 이상적인 삶의 계획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알 이즈 웰' 그리고 함께 주문을 외쳐줄 사람들과 함께 아깝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성래가 말한다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고통과 못 먹고 못 살아서 몸부림치는 고통의 차이가 무얼까 라는 생각이다. 인도영화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나라의 현실과 공통점이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을 보며 '사람의 욕심이란 것들은 기본적인 욕구들만 채워지면 비슷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출세하기 위해.. 그리고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취업을 위해.. 일류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젊은이들을 보며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란초'라는 주인공의 행동으로 인해 그의 주변사람들이 사고가 바뀌고 결국 각자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란초'라는 친구가 절실히 지기도 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란초'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이러한 사회구조와 부조리를 바꾸고 싶으면(이 영화에서는 교육 시스템) 결국 이 사회구조와 부조리 안에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와 같이 이등을 하는 '란초' 주장하는 것과 꼴지가 주장하는 것은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자 씩씩하면서도 결국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연이 말한다

예전에 발리우드의 최고 미녀 배우인 아이쉬와라 라이가 나오는 오만과 편견을 보고 인도영화에 매료되었던 적이 있었다. 인도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뮤지컬적인 요소와 색감, 유머와 익살 그리고 연출의 기발함은 너무나 매력적이다.^ 차일피일 미루다 드디어 보게 된 세열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웃은 것 같다. 마냥 웃을 수 만은 없는 내용의 영화지만 열간이라고 불렸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꿈을 이룬 그들..... 성장소설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공감되기도 했고 또 마음 한 켠이 울적해 짐을 느꼈다.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남들의 시선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한 고민

경쟁이 만연한 가운데서의 그것을 여행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수많은 질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고 풀어야만 하는 숙제이다. 이 영화는 이런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 세 사람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 마음이 시키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나 또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알 이즈 웰~!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재학이 말하다

'세 열간이' 사실 한국에서 출국 전 보고 온 영화여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또 봐도 재미있는 영화다.

성적만을 위주로,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만을 보고 있는 교육현실, 그 가운데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하며, 그렇기에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자는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은 하지만 쉽게 할 수 있지 않은 것. 그렇기에 우리가 더 열광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내가 어릴 적 꿈꿔 오던 것을 이루고 있나? 아니면 남의 시선과 사회적인 잣대에 의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성공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 오는 것"

맞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것에 집중해서 간다면 성공을 따라 오게 될 것이다. 알~이즈 웨일!!

10월 사진전



오늘은 이사하는 날~!
김 기술자와 한 조수. 침대 나사는 우리에게 맡겨라!!



아이들 두 명은 일도 아니다!
저렇게 높이 올라간 시소를 보았는가???



비 맞으며 출근 중ㅠㅠ
트럭 뒤에 타고 가는 출근길은,
우기에는.. 참 힘들다.....



센터 남자들의 낚시.
갑자기 어두워지는 날씨로 인해 30분 만에 끝난 낚시.
잡은 물고기라곤.....1마리.....



쌀 배달 나가신다!!
수해 입은 주민들에게 쌀과 물을 전달하기 전에 찰칵!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밤늦도록 계속된 빈곤퇴치 피켓 만들기.
그래도 다들 잘 만들었다고 해주고!
우리 캠팀 고생 많았어요~!